

이수지 『조선의 대일외교전략 청일전쟁전야 1876-1893』 호세이대학교출판국, 2016 년
(李穗枝 『朝鮮の対日外交戦略 日清戦争前夜 1876-1893』 法政大学出版局、2016 年)

책의 개요:

조일수호조규체결(1876 년)에서 청일전쟁 직전(1893 년)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대일외교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본서는 조선이 중주국 청의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일본에 대해 주체적인 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양상을, 청일전쟁에 이르는 과정과 연결시켜 고찰한다. 조일수호조규 이후 조선에서 일어난 변화를 시작으로, 일본과의 관세권 설정경위, 1882 년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 1885 년 조일간에 쟁점이 되었던 전선설치문제, 1889 년에 발발한 방곡령사건을 둘러싼 조일간의 대립과 이후의 배상교섭 등, 대일외교를 장기간에 걸쳐 추적함으로써,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정세에 영향을 끼친 조선의 전략적 사대주의 정책의 면모를 제시한다.

저자 약력:

1974 년 서울출생, 2012 년 도쿄대학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단위취득만기퇴학, 학술박사. 소화여자대학교, 관동대학교, 동해대학교 시간강사. 주요 업적으로 「防穀賠償交渉(1893 年)における日清韓關係」(『中国研究月報』제 63 권제 6 호, 2009 년), 「一八八五年の日朝海底電線条約続約締結交渉について」(『朝鮮學報』제 232 집, 2014 년) 등이 있다.

[관련 URL] <http://www.h-up.com/books/isbn978-4-588-60347-1.html>